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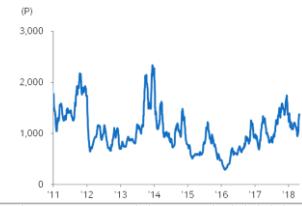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299.9	17.7	120,000	0.4	-4.8	-13.7	25.1	83.6	40.1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840.4	21.8	420,000	-0.6	-1.4	-7.8	10.2	5.7	4.7	0.7	0.7	14.1	14.7
현대일렉트릭	1,013.4	5.7	99,300	5.6	22.7	-20.6	-12.9	9.4	8.2	0.8	0.8	9.3	9.7
현대건설/기계	1,930.8	8.6	195,500	2.9	13.3	-2.0	15.7	12.4	9.2	1.4	1.2	11.7	13.9
삼성중공업	3,314.4	16.3	7,360	0.1	-2.9	-12.2	13.8	46.4	23.0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594.4	4.4	24,200	0.8	-9.0	3.6	74.1	8.9	10.7	0.8	0.7	9.0	6.8
현대미포조선	1,842.0	10.0	92,100	2.9	-3.5	-18.5	17.0	19.9	14.3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74.9	6.7	3,535	4.6	14.2	4.7	6.8	71.1	17.7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660.8	24.9	99,400	-4.4	27.8	61.1	82.7	17.5	17.1	24	21	14.6	13.3
두산밥캣	3,268.1	26.6	32,600	0.0	5.2	-9.6	-8.9	11.9	11.3	0.9	0.9	7.4	7.6
현대로템	2,771.0	25.1	32,600	22.1	106.3	92.3	73.9	42.0	28.7	1.9	1.8	4.5	6.3
하이록코리아	377.1	49.0	27,700	0.4	19.7	3.0	23.1	12.5	11.5	1.1	1.0	8.8	9.0
성광밴드	353.2	16.8	12,350	-1.6	12.8	2.9	23.7	1,091.7	44.3	0.8	0.8	0.1	1.8
태광	376.3	12.5	14,200	-1.4	21.4	-24	17.8	84.8	41.4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932.3	11.5	18,150	1.4	18.6	11.7	18.2	17.5	11.4	0.6	0.6	3.7	5.2
두산인프라코어	2,154.3	13.4	10,350	1.0	22.1	-4.2	19.1	7.4	6.8	1.1	1.0	15.6	15.0
두산엔진	443.4	3.5	6,380	1.6	13.9	47.0	73.1	-63.9	98.4	0.8	0.8	-1.3	0.8
한국항공우주산업	4,030.6	16.1	41,350	-4.3	-15.8	-18.1	-12.9	32.4	22.8	33	29	10.0	13.1
한화테크윈	1,228.2	12.8	23,350	-3.1	-18.5	-29.1	-34.3	22.5	13.8	0.5	0.5	2.4	3.7
LIG넥스원	816.2	10.6	37,100	-6.2	-21.5	-35.4	-38.0	15.4	10.9	1.3	1.2	8.4	11.0
태웅	411.2	4.5	20,550	7.3	10.2	-12.7	6.2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70.0	5.4	6,300	-1.7	-16.6	-25.4	24.8	-46.3	66.3	2.0	1.9	-4.3	3.1
한국카본	266.8	14.0	6,070	1.3	1.3	-12.7	13.2	54.0	29.8	0.8	0.8	1.6	2.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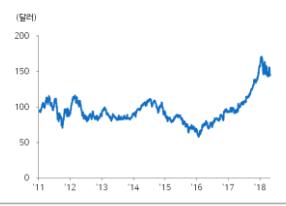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19 1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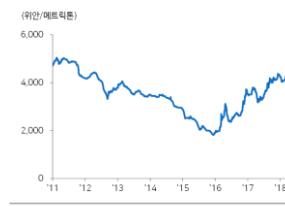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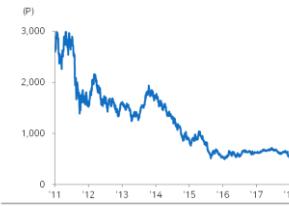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 Stock) -0.56 143.86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현대건설기계, 영업익 618억… 45% 증가**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중국 및 신한국의 인프라 공사 확대로 중대형 굴삭기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 컨센서스를 상회한 1분기 실적을 기록함. 1분기 실적은 매출액 9,305억원(+44.4% YoY), 영업이익 618억원(+45.1% YoY)을 기록했고, 1분기 중국에서 판 건설기계는 2,536대(+106% YoY)로 알려짐. (한국경제)

Beijing faces fightback after blocking ship demolition

중국은 폐기물 처리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법률에 따라 올해 말 선박 폐선 조선소를 닫을 예정으로 알려짐. 이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아니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을 위한 선박과 기타 부유물을 대한 수입을 금지할 계획임. 그러나 선주들 중심으로 로비 활동과 폐선은 당분간 진행될 전망임. (TradeWinds)

Maersk Tankers inks six newbuildings in China

Maersk Tankers는 선대 현대화를 위해 중국 Dalian 조선소에 LR2 선박 6+4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의 인도는 2020년 예정이며, 옵션 발효를 통해 선대 현대화에 힘쓸 계획임. Maersk Tankers는 작년에 Mitsui & Co가 투자 후 새로 설립된 이사회가 이번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현대일렉트릭 1분기 적자전환, 880억 규모 스마트팩토리 짓기로

현대일렉트릭은 1분기 매출액 4,301억원(-6.2% YoY), 영업손실 308억원(적자전환), 순손실 276억원(적자전환)을 기록함. 주된 적자의 원인은 1) 중동에서 전력 기기 투자가 지연, 2)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범암기 수주가 감소했고, 3) 조선/해양 업황 회복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연비 4% ↑" 삼성중공업, MSC 발주 컨선에 공기운활시스템 적용키로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사 MSC에서 수주한 2.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연료 효율을 약 4% 높일 수 있는 '삼성 공기운활시스템(SAVER Air)'를 적용한다고 밝힘. 수주한 6척 중에서 1척에 우선 적용하며, 5척은 추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임. 또 적용 비용은 선기에 추가반영될 예정임. (매일경제)

Gibson warns over speculative VLCC ordering

Gibson shipbrokers는 최근 비해운 선주들이 용선계약 없이 VLCC에 대해 투기적 발주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함. 선주들이 투기성 발주를 하는 이유는 1) 저 선가, 2) 해체량 증가 등으로 알려짐. 올해 글로벌로 총 24척의 VLCC가 발주됐고, 수주잔고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알려짐.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5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